

80대 남편이 아내 살해...극한 치달는 '황혼 갈등'

광주 남구서 말다툼 하다 화끈에 머리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해 고흥서도 70대 아내 살해 사건...노년층 극한 범죄 갈수록 늘어 경제 문제·분노조절 장애 등 원인...광주·전남 황혼 이혼도 급증

광주·전남에서 황혼(黃昏)을 맞은 노년기 부부 간 갈등이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 누적이 된 결혼생활 불만,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복합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분노로 표출돼 배우자의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사태를 낳고 있다.

6일 광주남부경찰은 둔기를 휘둘러 8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80대 남편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84)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주거지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녀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집에 도착한 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했다. 둘 다 성격이 급한데

다 매일같이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A씨의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십여년 전 부터 부부로 살았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B씨는 A씨와 지내면서 생계비, 의료, 주거 급여 지원을 받아왔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B씨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범행했는지는 경찰이 추가로 수사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늘면서 이같은 극단적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력구제가 어려운 치매환자는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분노 조절이 불가능해 가해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신 채 사

실혼 관계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도 최근 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C(71)씨는 지난 2021년 고흥군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동거하던 아내가 자신의 수입을 모두 써버리고 10여년 동안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몰래 중도 해약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해지금을 사용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D씨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노년기는 부부간 복합적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할 시기로 역할 등 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이런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분노가 표면으로 분출되고 결국 범죄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노년기에는 흥분 또는 자기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결국 부부갈등으로 인해 폭력충동, 자기중심성충동, 가솔충동이 발생해 노년기 우울증 등 정신병리학적 요인과 알콜, 약물 복용 등이 합쳐지면 '분노범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부의 위기는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이혼통계를 보면 광주·전남 65세 이상 남·여 이혼 건수는 지난 2019년 725건, 2020년 710건에 그쳤지만 2021년 888건으로 급증하고 2022년에도 809건에 달했다.

주된 이혼 사유로는 가정 폭력과 경제적 문제가 꼽혔다.

김혜민 가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이혼 소송의 주류는 황혼이혼이다. 자녀 때문에 참아 왔던 이들이 부당한 대우, 가정불화, 폭력 등이 이어지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갈등을 관리하는 전문상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갈등과 분노가 일순간 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잠재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과 양성평등 교육 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유가 갈등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외에 노부부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만원 어치 밀수입 지역형에 벌금 2억8734만원

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50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억873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세관에 신고 없이 중개 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산 실뱀장어 35.5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본산 실뱀장어를 국내에 판매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홍콩의 중개무역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다.

B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산 실뱀장어 40kg(kg당 80만엔)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수출입 업체 대표(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통해 부산항으로 밀반입했다.

환어치량이 해경에 적발돼 이들의 범행은 들롱났다. 밀수된 실뱀장어는 모두 폐기 조치됐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통관 업무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4명 2022년 이어 또 집유 징역형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의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의사들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부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건범죄 특별 조치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로 수익을 얻은 이상 의료법 대신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척추병원은 2022년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로 적발된 병원으로 최근 이 병원 의사·직원 등 6명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켓 5000원...신학기 교복나눔장터 6일 광주 북구 우산동 상설교복나눔장터에서 신학기를 앞두고 열린 교복나눔 행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평일 연중 운영되는 장터는 자켓 5000원, 바지·셔츠·조끼 3000원 등이 판매되며 수익금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순천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 숨져

순천에서 30대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6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께 순천시 용당동의 18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A(31)씨가 추락했다.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인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아파트 17층에 멈춰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 옆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동으로 이동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옥상의 박공(‘八’자 모양 지붕)에서 밟을 헛다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엘리베이터 업체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옥상의 박공(‘八’자 모양 지붕)에서 밟을 헛다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엘리베이터 업체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모욕 메시지 보낸 5·18부상자회 전 간부 실형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공범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SNS로 오월 어머니집 김모 관장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5회 전송하고,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관장이 다른 사람들과 카톡으로 공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에 이번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